



정교회 주보



성 흐리산토스와 다리아 순교자

사순절 제 1주일 / 정교 주일

성 야고보스 수도고백자

제 8조, 조과복음 8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제 8조 부활찬양송 / 82, A 218

•주일 입당송 / 14, A 42

•정교주일 찬양송 / 223, B 275

•성당 찬양송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사도경 : 히브리 11:24~26, 32~40 / 봉독서 445

•복음경 : 요한 1:44~51 / 137, B 93

•성모송(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223, A 171

* 정교주일 성화 행렬

교회의 기훈 성인들

성 흐리산토스와 다리아 순교자

흐리산토스 성인은 알렉산드리아의 원로원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아테네 출신인 다리아라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아들의 마음을 바꾸고 결혼시키려 하였습니다. 결말은 빨리 왔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흐리산토스 성인은 오히려 아내인 다리아를 세례 받게 하고, 진정한 지혜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부부가 아닌 남매처럼 살면서 백

성들에게 순결한 삶, 절제와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의 기쁨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자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궤멸시킨 이 힘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흐리산토스와 다리아가 여인들에게 강제로 남자를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지역 총독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성인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결국은 순교하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3세기)

복음을 전합시다

필립보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립보는 예수님을 보자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고 바로 나타나엘에게 가서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되어있는 구세주를 만나보았으니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요한1,46) 우리는 필립보가 보여준 전도자의 자세를 본 받아야겠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타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지만,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과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성당은 아주 드물게 나가고, 성서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설교 듣기도 싫어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고백성사를 하지 않으며, 성체성혈도 받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 바르게 살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며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기회만 되면 벗어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필립보와 같은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와서 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타나엘과 같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러면 우리는 필립보가 그랬듯이 “**와서 보시오**”하며 그들을 성당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그들도 보고 듣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전도자의 사명감을 갖고 가족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길에서, 버스 안에서나 식당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전도의 사명이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한 55개의 금언(2)



(†토마스 흉코 신부, 1939-2015)

26. 맡은 일을 하라.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려라.
27.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하라.
28. 현실을 직시하라.
29.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
30. 밝고 명랑한 사람이 되라.
31. 단순하고, 드러내지 말고, 조용하고, 소박한 사람이 되라.
32.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마라.
33. 누군가 당신에게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라.
34. 깨어서 주의를 기울여라.
35.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말하라.
36. 말을 할 때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즉각적으로 하라.
37. 상상이나 환상, 분석, 계산을 회피하라.
38. 성적이고 색정(色情)적인 것은 처음부터 피하라.
39. 불평하거나, 중얼거리거나, 투덜거리지 마라.
40. 당신 자신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라.
41. 누구한테서도 칭찬이나 동정을 바라지 마라.
42. 어느 누구도, 어떤 일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43.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납득시키려고(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
44. 당신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라.
45.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정의(규정)되고 구속되어라.
46. 비판과 비난을 고맙게 받아들이되 비평적으로 확인하고 검사해 보라.
47. 누군가 물어오거나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충고를 하라.
48. (무엇인가를)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이는 일부러 도와주지 마라.
49. 일시적인 기분이나 변덕을 피하면서 매일 매일의 활동계획을 세워라.
50.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워져라.
51. 마지막으로 크게 숨을 쉬고 싶은 것 말고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52. 절대적으로 하느님과 빛에 초점을 맞추고, 죄와 어둠에는 하지 마라.
53. 당신 자신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들어낸 시련을 평화롭고 차분하게 견뎌라.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비참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54. 넘어지면 곧바로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55. 필요하다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부산 성모희보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3월 25일(목) 축일을 맞이하는 부산 성모희보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과 모든 신자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중보로 충만한 은혜와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대사순절 기간 예배 유튜브 생중계

코로나19로 인해 대사순절 주중 예배, 화, 목요일 오후 5시 석후대과, 수요일 오후 5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금요일 오후 6시 성모기립찬양을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 온라인 성서공부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온라인으로 강의하던 베드로1서 성서공부를 지난 3월15일(월) 46번째 강의를 끝으로 마칠 수 있었음을 하느님께 감

사드립니다. 그 동안 성서공부를 시청해주신 국내외 정교인들, 비정교인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약 2주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온라인 성서공부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성서공부 내용은 한국정교회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중에 두 번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성당 재건축 건축비 헌금

계속해서 신데즈모스 회원들과 신자 분들이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을 위한 헌금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간 예식



■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24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25일(목) 성모희보 축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 3월 26일(금) 오후 6시 - 성모기립찬양(제2스타시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